

한국문학번역도서관 개관

세계문학 속의 한국문학 확인하고 공유하는 전문 아카이브

글_이주연 기자 | 사진 제공_한국문학번역도서관

이제 우리도 외국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도서관을 갖게 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윤지관)은 지난 10월 5일 '한국문학번역도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해외 소개 역사와 그 결과물들을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번역원이 소장하고 수집해온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도서관을 설립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통계에 의하면 외국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 작품은 26개 언어권 2,296종에 이른다.(2007년 10월 현재) 그동안 한국문학의 해외번역과 출간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해외 소개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제대로 수집되고 정리되지 못해 연구자들조차도 세계문학 차원에서 한국문학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한국문학번역원 윤지관 원장은 “한국문학이 번역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이제까지의 자료가 작은 도서관 규모로 축적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세계문학 속의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뜻 깊은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문학 관련 텍스트, 영상,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문학번역도서관은 26개 언어권 1,700여 종의 한국문학 번역도서와 한국 작가들의 해외 활동 자료, 한국문학 해외 소개 비도서 자료들(CD, DVD, 사진 등)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번역가 연구실'과 '번역가 사랑방' 같은 부대시설을 통해 번역가들의 번역과 정보 교류를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산 전기제품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서가에서 한국 작가의 책을 찾기는 어렵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해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것도 일본의 부지런한 번역 작업과 홍보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해외번역가는 물론 번역된 작품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외에서 번역된 작품이 20권을 넘긴 작가가 이문열, 이청준, 고은, 황



석영, 박완서 뿐이라는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먼 한국문학의 번역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에 개관된 한국문학번역도서관이 우리의 번역 현실을 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한 프랑스어권 번역가는 “한국문학번역도서관이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기대 반, 근심 반이다. 번역 전문 아카이브라면 일단 자료의 양이나 질이 월등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번역 현실에서 그만큼 자료들이 축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번역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일제시대 자료나 한국문학 해외 소개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 등을 총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작가파일’을 만들어 우리 작가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소개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정비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